

하나금융투자 2021년 리서치 전망 포럼

중국 투자전략

‘산자’와 ‘싼자’의 시간

Analyst 김경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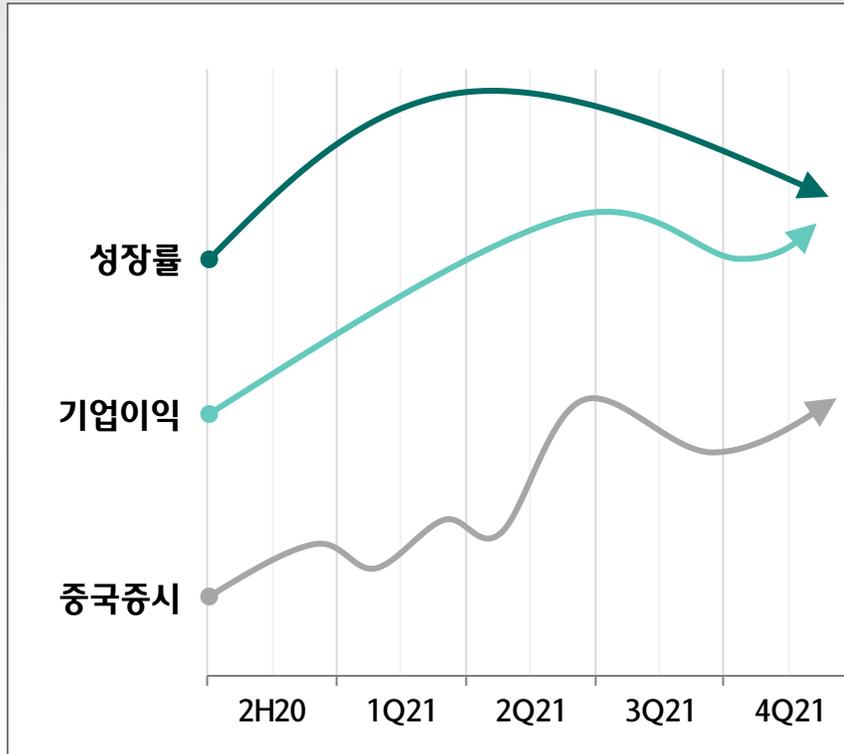
E-mail: khstyle11@hanafn.com

Tel : 3771-761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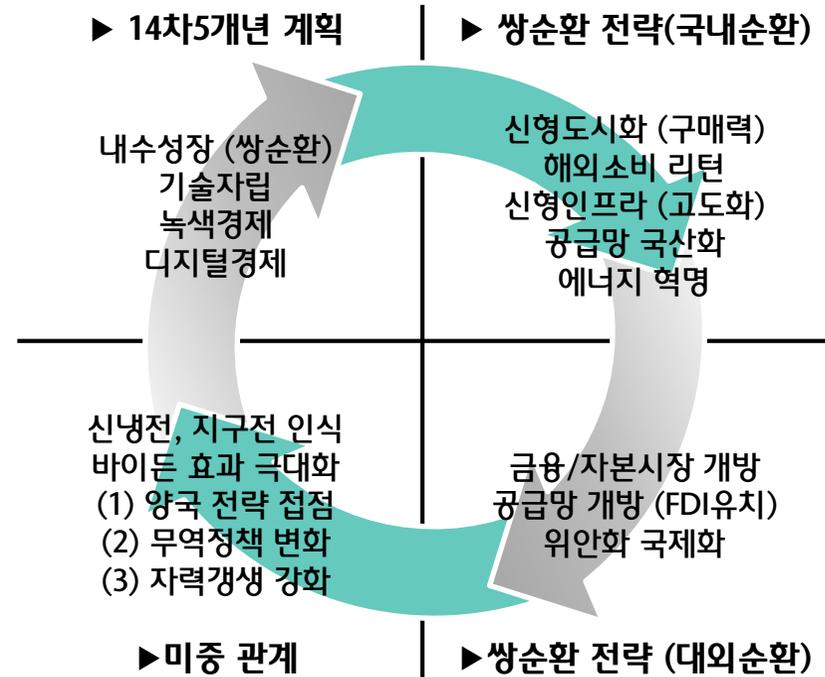


2021년 중국 전망 : ‘산자’와 ‘싼자’의 시간

- 2021년 ‘산자(중국/위안화/1등 제조기업)’와 ‘싼자(수출주/가치주/실적주)’의 시간
- 중국경제, 공급 우위와 수요회복 지속 : 6대 성장엔진 점화, 수출과 경기소비가 업사이드 요인
- 중국증시, 실적 기반 강세장 후반전 : 이익 사이클, 내수 에너지 응축(쌍순환), 미중긴장 단기 완화



자료: 하나금융투자



CONT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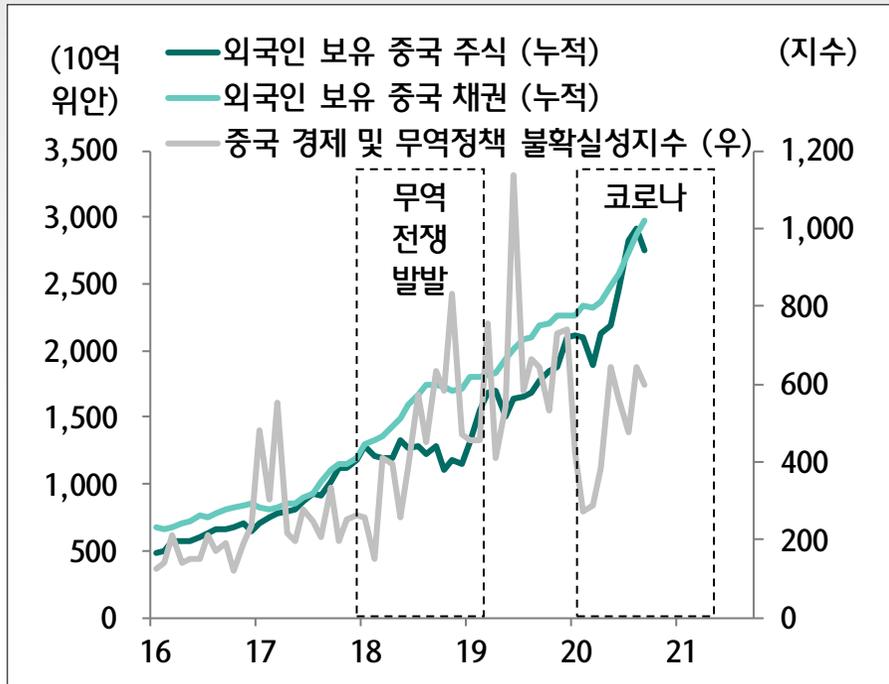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자금 이동 : ‘산자’와 ‘싼자’의 시간 | 4 |
| 2. 2021년 펀더멘털 : 모든 성장엔진 점화, 2017년과 유사 | 8 |
| 3. 5년의 구상 : 쌍순환 전략, 안에서 밖을 보다 | 14 |
| 4. 2021년 중국증시 전망 : 강세장 후반전 | 18 |

1. 자금 이동 : '산자'와 '싼자'의 시간

외국인, 어두워지니 중국이 잘 생겨 보였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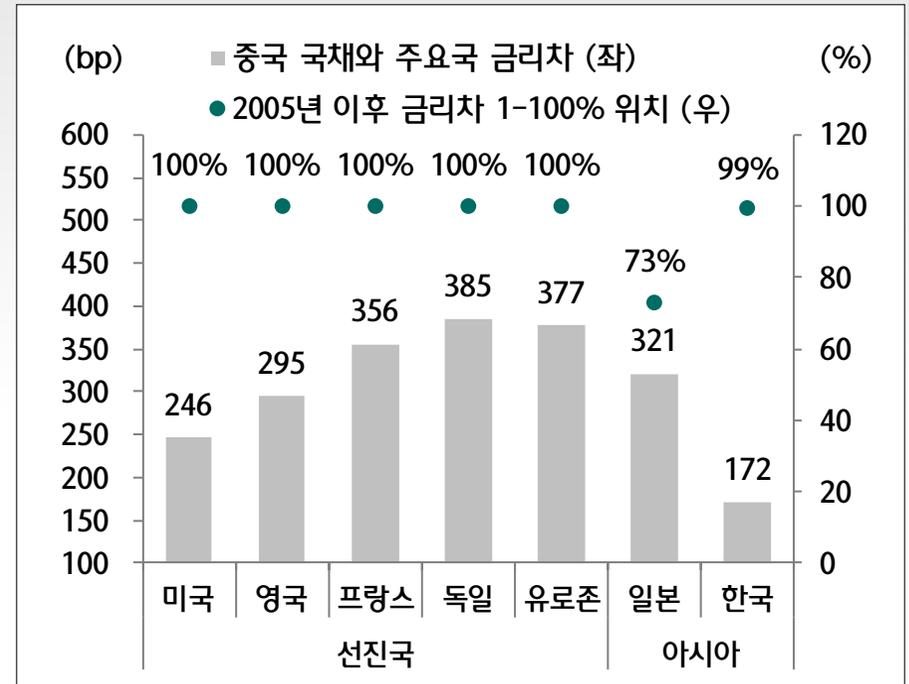
- 외국인, 코로나와 신냉전 환경 속 중국 주식, 채권, FDI 큰 폭으로 증가 → 위안화 하반기 7% 절상
- 2020년 ①빠른 방역과 경제 정상화, ②주요국 대비 성장/금리 차 확보, ③적극적인 금융 개방 매력
- 2021년에도 펀더멘털 우위와 개방 확대로 '자금 유입·환 강세' 선순환 예상 : 쌍순환 전략에 유리

외국인, 대외 불확실성에도 중국 주식/채권 매입 확대


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2021년 펀더멘털 우위에 따라 자금 유입 지속 예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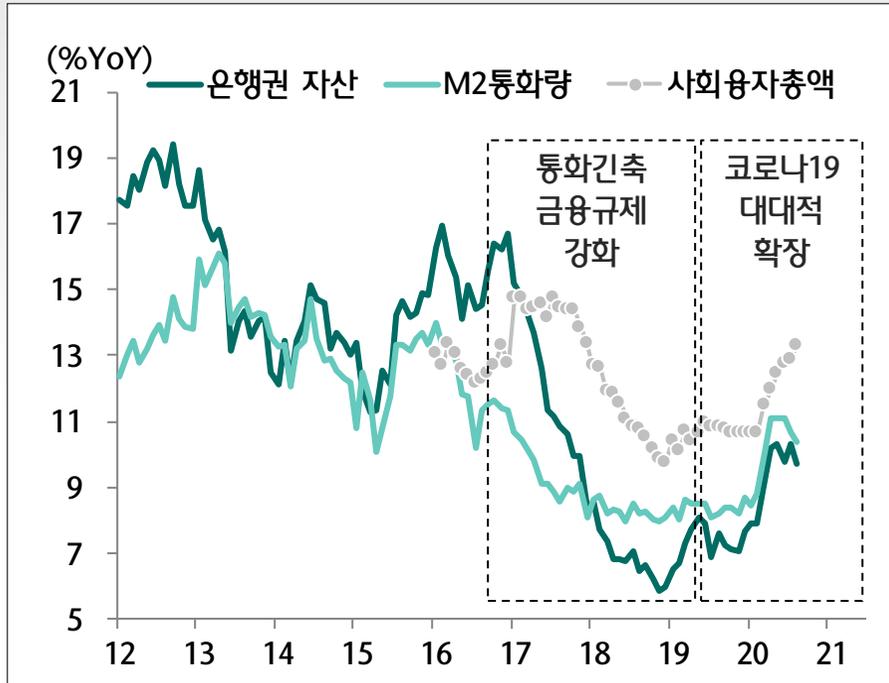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1. 자금 이동 : '산자'와 '싼자'의 시간

내부 유동성, 기업부문으로 빠르게 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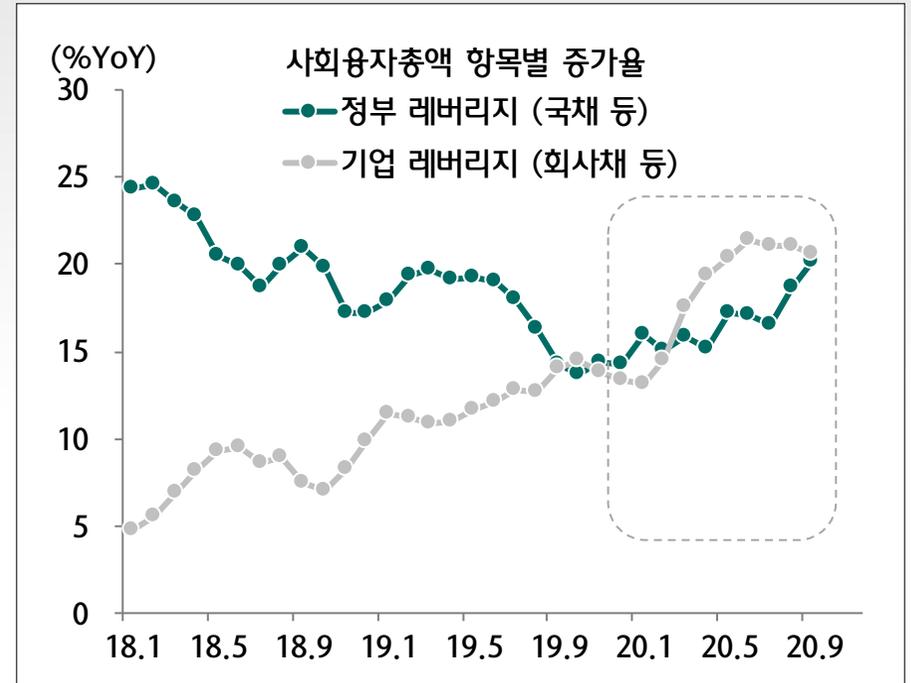
- 내부적으로 14%/GDP규모 부양책 시행, 유동성 대폭 확장 : 종합지표 사회용자총액 9개월 연속 확장
- 특히, 기업부분은 2017년 이후 최초로 대출 및 채권/주식 발행속도 15% 상회
- 중장기 대출 65% '제조업/서비스업(부동산 제외)', 채권 '인프라/부동산', 주식 '전자/제약/기계'

통화/재정 모두 반영되는 사회용자총액 기록적 확장


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2020년 기업부문 레버리지 평균 20%대 증가율 육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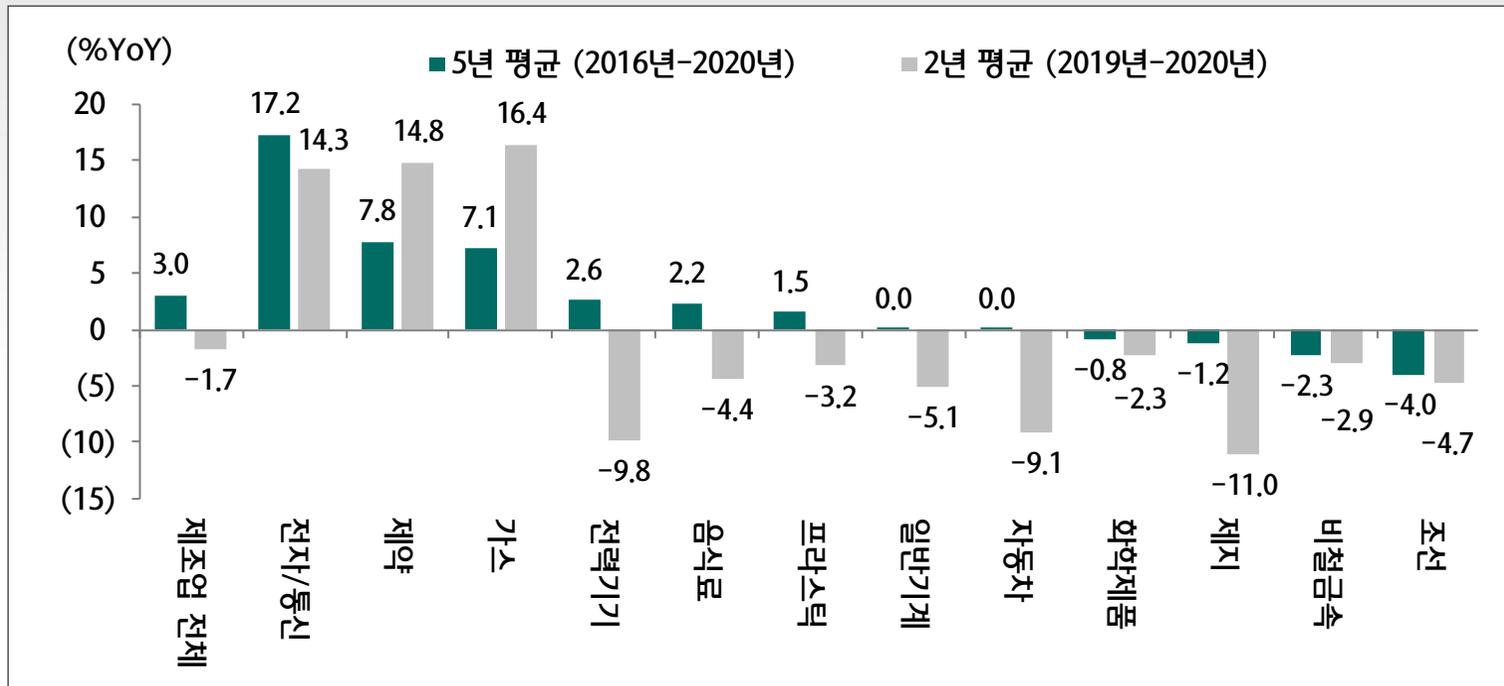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1. 자금 이동 : '산자'와 '싼자'의 시간

다만, 기업부문 양극화 더 심화 → 2021년 구조조정 가속화 예상

- 다만, 기업부문의 레버리지는 과거보다 양극화가 더 심화 : 대형기업, 국영기업 집중
- 제조업의 고정투자는 최근 5년간 일관된 양극화 발생 : 신흥산업 쏠림, 전통 제조업 투자/공급 축소
- 2021년 정책 정상화와 실질금리 상승에 따라 제조업 디폴트 ↑ 구조조정 가속화•산업집중도 ↑

중국 제조업 업종별 설비/Capex 투자 증가율 : 최근 5년 평균 vs 최근 2년 평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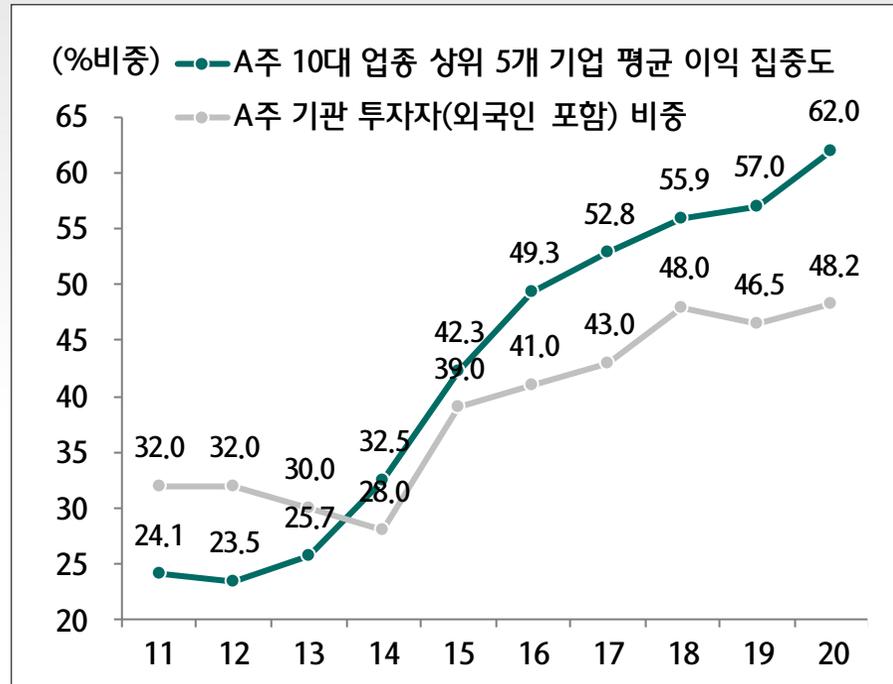
주 : 2020년 제조업 고정투자는 1-9월 누적 전년비 증가율
 자료: Wind, 하나금융투자

1. 자금 이동 : '산자'와 '싼자'의 시간

2021년 '산자(1등기업)' 중 '싼자(수출주/가치주/제조업)'의 반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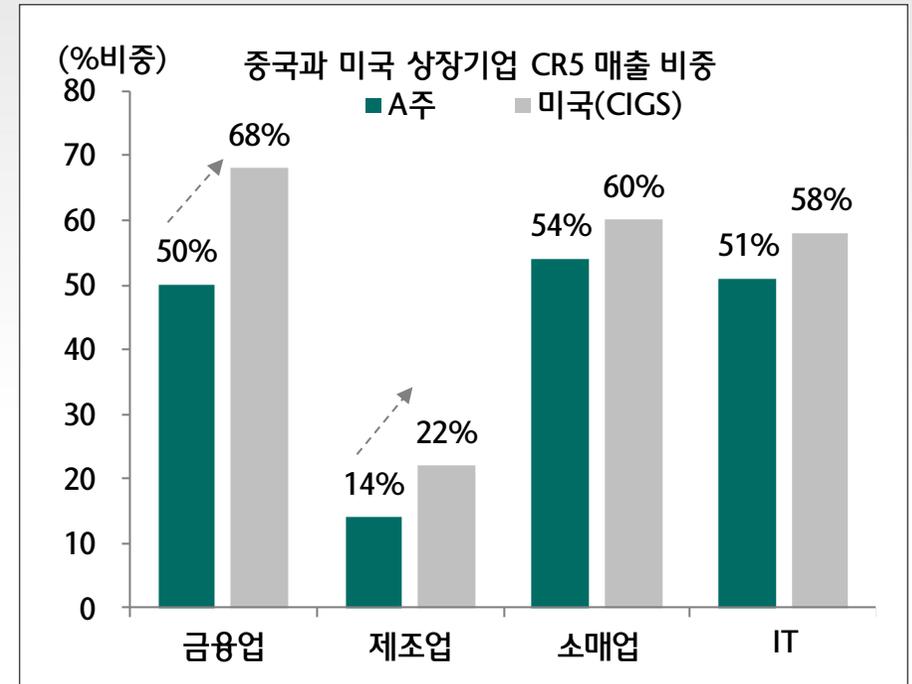
- A주 시장 2016년 이후 외인과 로컬 기관 견인 우량주 투자 전성시대 도래 : 소비/성장주 쏠림 심화
- 2021년 중국 제조업은 구조적인 양극화와 순환적인 회복세에 따라 '산자'들의 파티, 슈퍼 1등주 출현
- 2021년 A주 시장 밸류 부담 낮은 1등 제조기업(소재/경기소비/신재생) 및 금융주의 아웃퍼폼 예상

기관투자자 수급과 업종별 산업집중도 빠르게 상승


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미중 비교 : 중국 제조업과 금융 집중도 상향 여력 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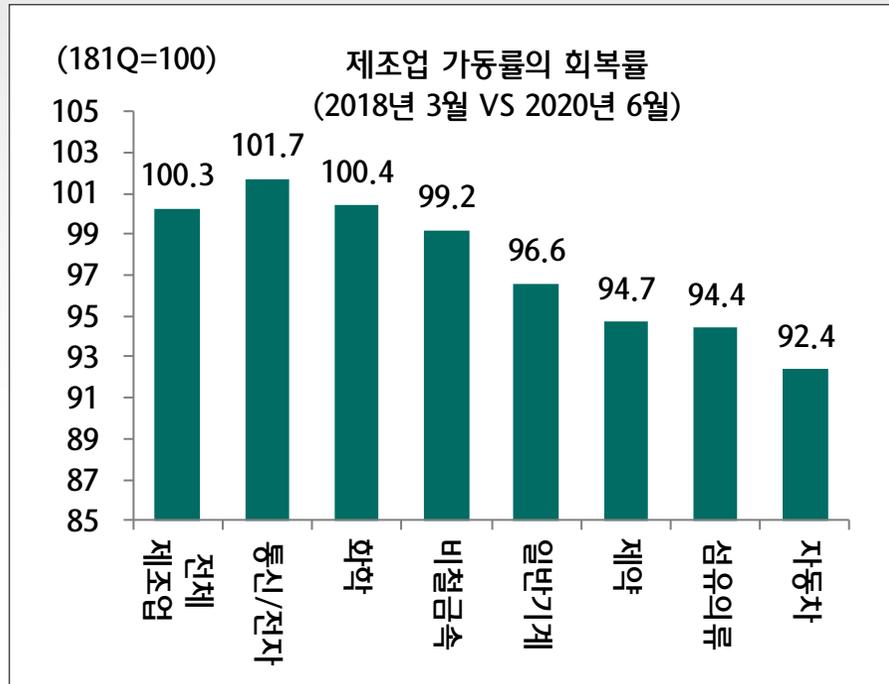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2. 2021년 펀더멘털 : 모든 성장엔진 점화, 2017년과 유사

모든 성장엔진 점화, 2021년 공급 우위와 수요 회복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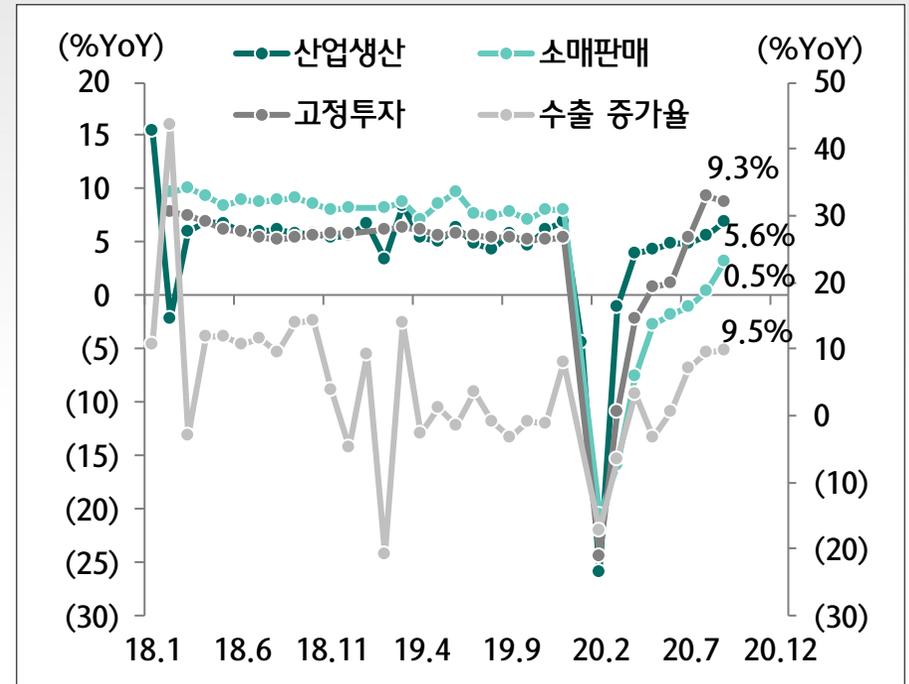
- 하반기 중국 제조업 가동률은 무역전쟁 직후 레벨까지 회복 : 21년 수출과 자동차 밸류체인 회복 전망
- 중국과 동아시아의 압도적인 공급 우위는 2021년 대 선진/신흥국 대상 수출(+재수출) 회복에 유리
- 상반기 ‘생산-투자-부동산’ 중심에서 하반기 ‘제조업-서비스업-수출-소비’의 회복 가세

중국 제조업 가동률, 무역전쟁 직후 수준까지 회복


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성장엔진 점화 : 제조/서비스/부동산/수출/투자/소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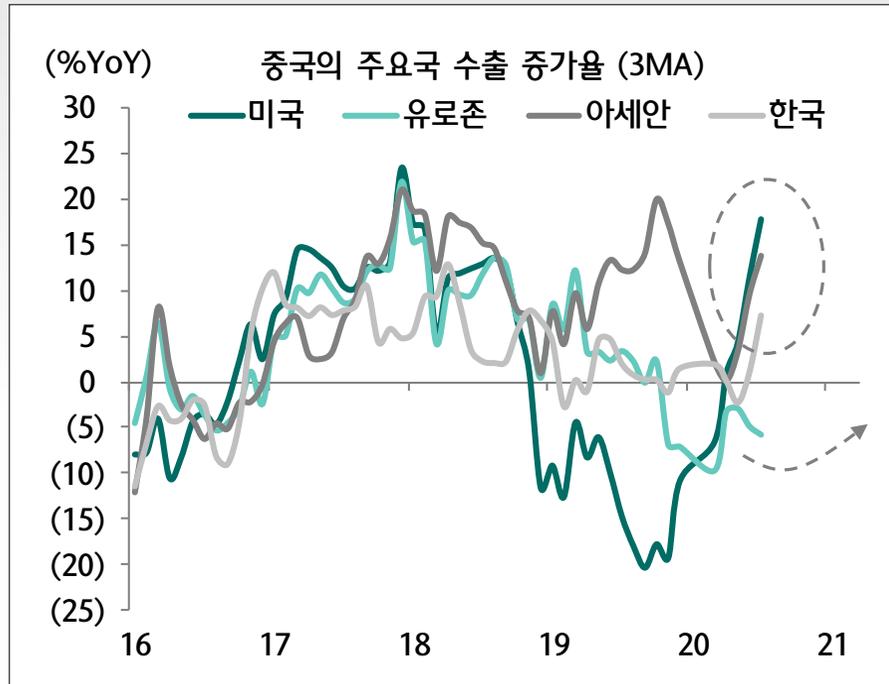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2. 2021년 펀더멘털 : 모든 성장엔진 점화, 2017년과 유사

업사이드 요인은 수출과 경기소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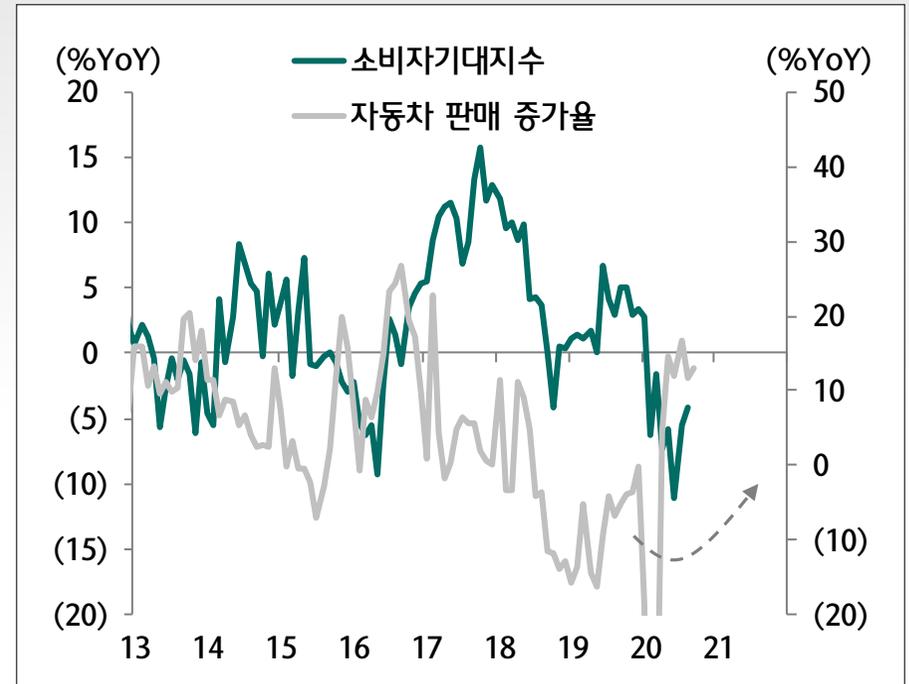
- 중국 수출 글로벌 비중 13% ▶ 16% : 2021년 공급 우위, 수출지역/품목 다변화, 선진국 재수출 회복
- 방역품 감소와 환율 강세는 교역량 증가(Q)와 교역조건 완화(P=관세인하)가 완충 : 연간 15% 성장
- 경기소비(자동차/가전/내구재)는 소비심리와 신용소비(非주택) 반등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 기대

중국 수출, 지역/품목 다변화로 안정적인 회복 예상


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소비심리 반등, 가계 레버리지 통해 경기소비 회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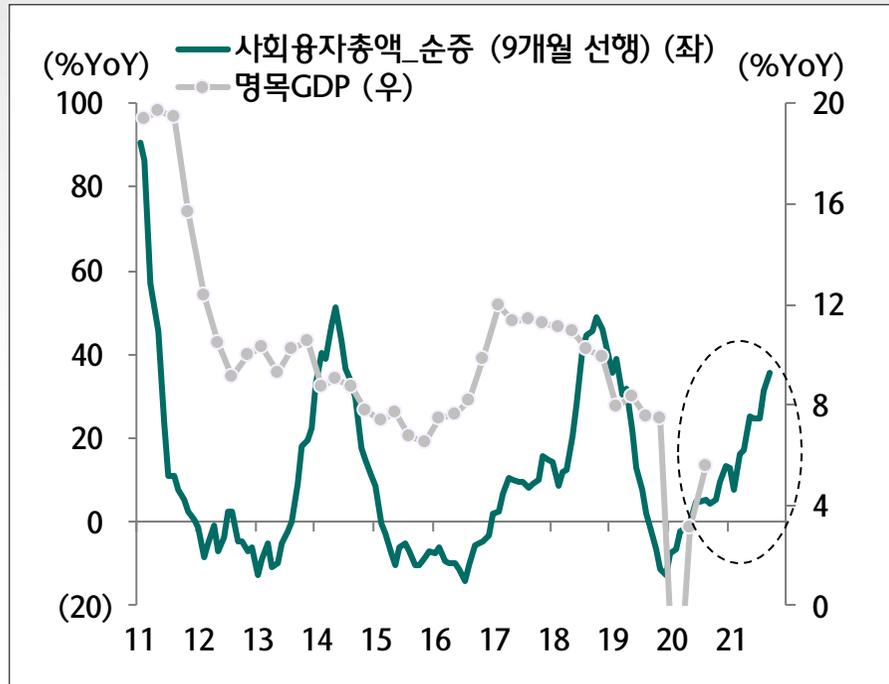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2. 2021년 펀더멘털 : 모든 성장엔진 점화, 2017년과 유사

업사이드 요인은 수출과 경기소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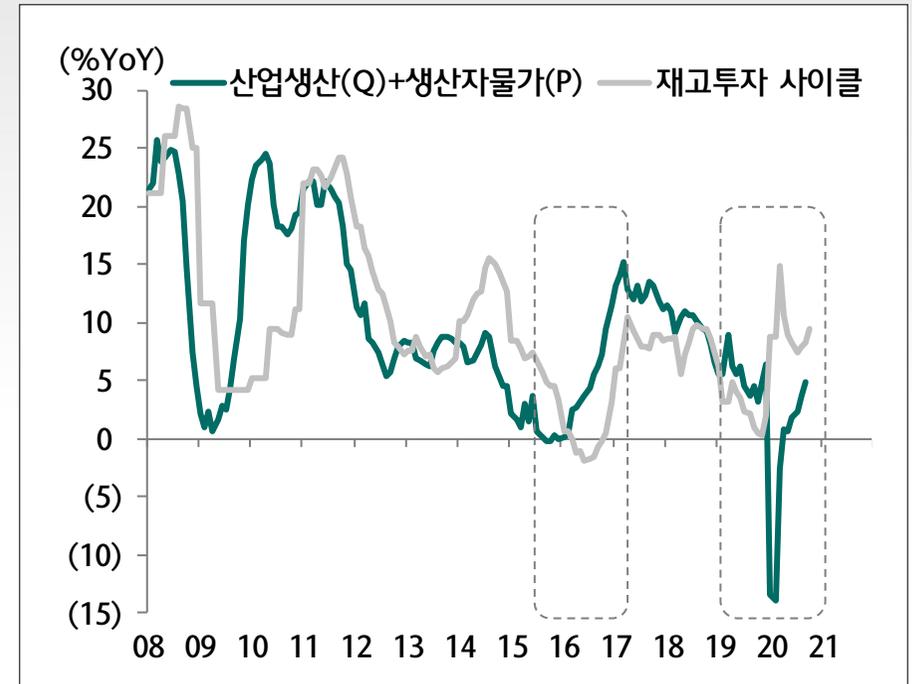
- 2021년 정책효과 연장, 재고사이클, 베이스효과가 성장을 보장 : 2021년 연간 9-10% 성장
- 역대 최장 재고사이클(평균 38개월/현재 51개월)은 2021년까지 가격과 기업이익 회복세 견인
- 2021년 재고, 수요회복 패턴(인프라▶부동산▶자동차▶수출)과 턴어라운드 업종은 2017년과 유사

2020년 정책 효과, 2021년 성장률 보장


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2021년 재고/이익 회복 사이클은 2017년과 유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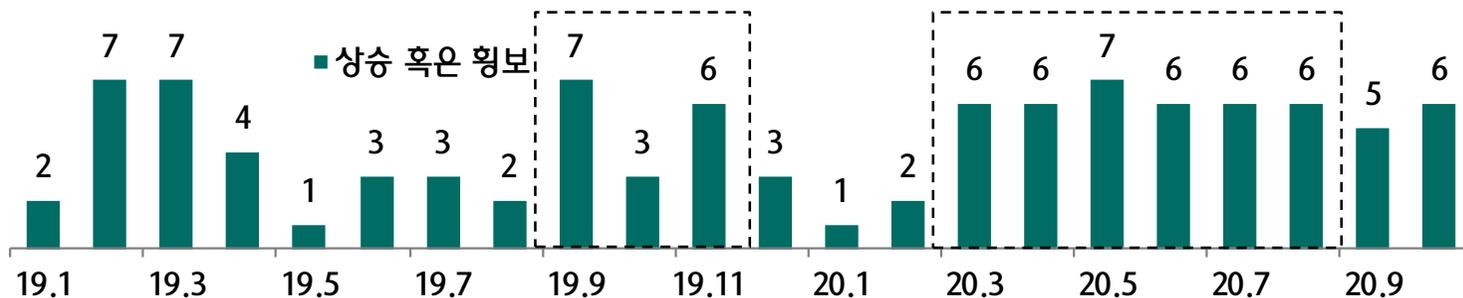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2. 2021년 펀더멘털 : 모든 성장엔진 점화, 2017년과 유사

기업이익, 2021년 3분기까지 상승 → 전자/화학/자동차/기계/플랫폼

2021년 재고/이익 사이클, 산업정책 고려한 유망 업종 : 5G/전자/전기차/화학/비철/기계/온라인플랫폼

| 8대 선행지표 | 2019년 | | | | | | | | | | | | 2020년 | | | | | | | | 2021년 예상 | | | | |
|----------|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|
|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상반기 | 하반기 | |
| 사회용자총액 | 상승 | 하락 | 상승 | 하락 | 상승 | 상승 | 하락 | 하락 | 횡보 | 하락 | 횡보 | 횡보 | 횡보 | 횡보 | 상승 | 상승 | 횡보 | | |
| 은행권 대출 | 하락 | 상승 | 상승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상승 | 하락 | 횡보 | 하락 | 하락 | 횡보 | 상승 | 상승 | 상승 | 횡보 | 하락 | 횡보 | 횡보 | 상승 | | | |
| 제조업 PMI | 하락 | 상승 | 상승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상승 | 하락 | 상승 | 하락 | 상승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상승 | 상승 | 하락 | | |
| 인프라투자 | 상승 | 횡보 | 상승 | 횡보 | 하락 | 상승 | 하락 | 상승 | 상승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상승 | 상승 | 상승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상승 | | | |
| 주택거래면적 | 하락 | 횡보 | 상승 | 상승 | 하락 | 하락 | 상승 | 상승 | 상승 | 상승 | 상승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상승 | 하락 | | | |
| 자동차 판매 | 하락 | 상승 | 상승 | 하락 | 하락 | 상승 | 상승 | 하락 | 상승 | 상승 | 상승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상승 | 상승 | 상승 | 하락 | 상승 | 하락 | 상승 | 상승 | | | |
| 생산자물가 | 하락 | 횡보 | 상승 | 상승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상승 | 상승 | 상승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상승 | 상승 | 상승 | 하락 | 상승 | | | |
| 채권금리 10Y | 하락 | 상승 | 하락 | 상승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상승 | 상승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하락 | 상승 | 상승 | 상승 | 상승 | 하락 | 상승 | | |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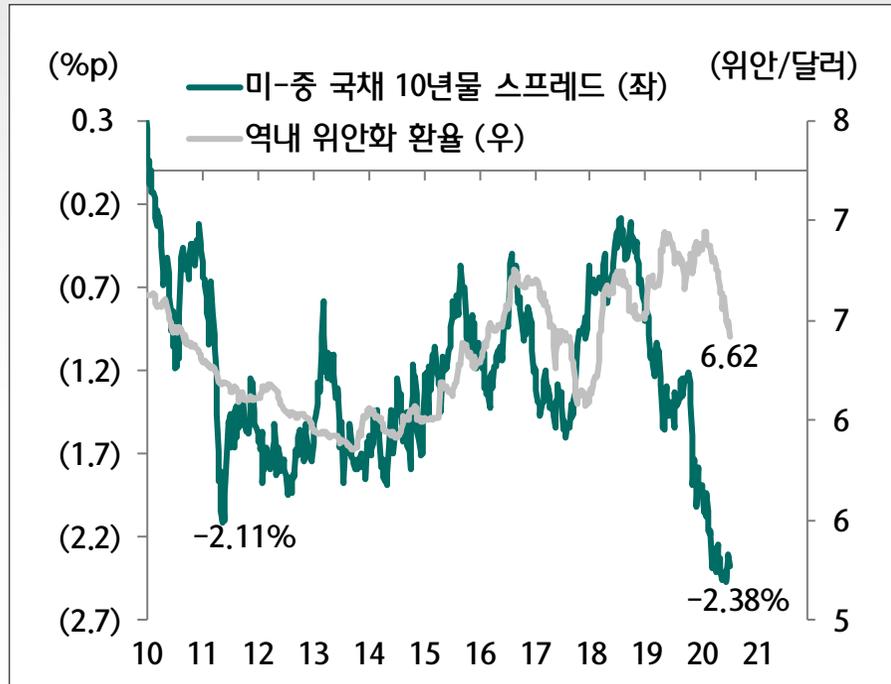
자료: 하나금융투자

2. 2021년 펀더멘털 : 모든 성장엔진 점화, 2017년과 유사

위안화, 2021년 약세 요인을 찾기 더 어려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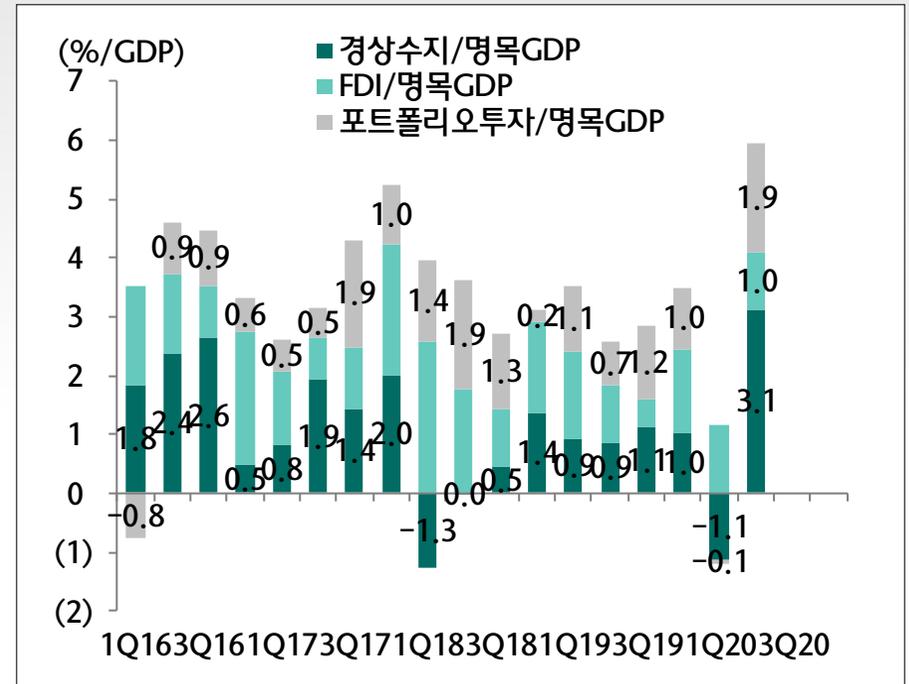
- 2021년 위안화 환율은 약세요인보다 강세요인 우세 : 평균 환율 6.2-6.4위안, 상고-하안정 패턴
- 중국의 ‘쌍순환 전략’은 기본적으로 위안화 강세가 유리 : 내수 활성화, 금융시장 개방, 위안화 국제화
- 2021년 펀더멘털 환경 유리 : 달러 약세 압력, 성장률/금리차 확보, 경상/자본수지 흑자 구조 유지

2021년 위안화의 펀더멘털, 금리차, 정부 스탠스 유리


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2021년 경상수지/FDI/포트폴리오 투자 급감 제한적


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2. 2021년 펀더멘털 : 모든 성장엔진 점화, 2017년과 유사

바이든 당선 '단기 화재' : 교역환경↑/위안화/정책 점점 업종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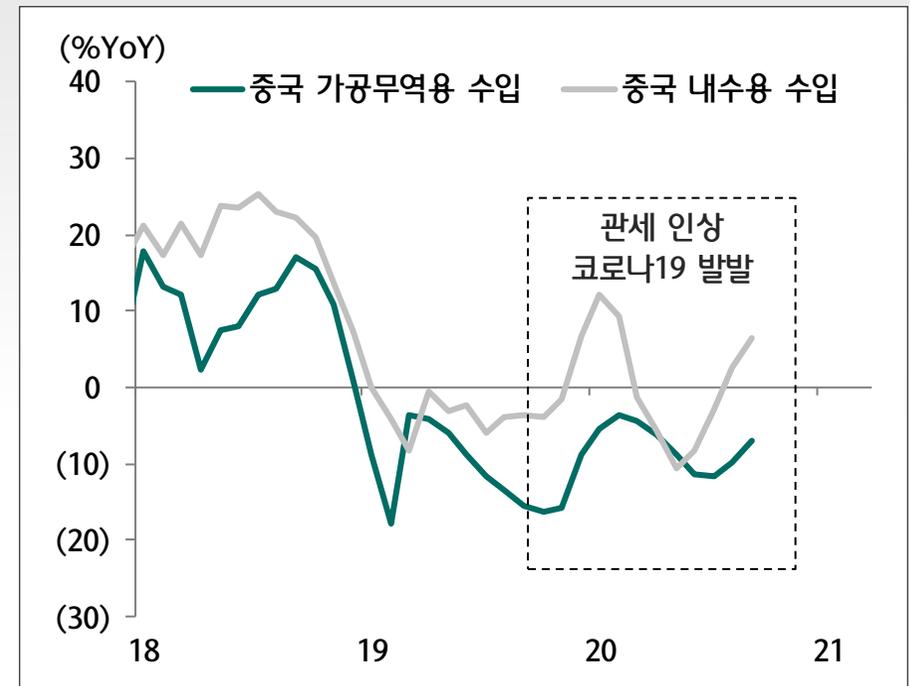
- 무역정책 변화, 테크(기업)제재 유지, 금융/환율/외교 장기 위협 : 2021년 불확실성과 교역 환경 개선
- 고율관세 정책 변화될 경우 피해 컸던 '전자/화학/의류/기계/가전/자동차' 수출 탄력적인 회복 기대
- 2021년 위안화의 강세 흐름도 연장될 가능성, 양국 전략과 접점을 가진 '신재생, 인프라' 수혜 기대

바이든 후보 당선 시 예상되는 대 중국 정책

|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별 대중국 전략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쟁점 분야 | 바이든 후보/ 미국 민주당 입장 | 당선 시 예상 조치 (당사 예상) |
| 무역 관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바이든, 기본 성향은 자유무역, 다자주의, 글로벌화, 환경보호 지지 • 바이든, 중국 무역적자 확대, 미국 일자리 감소, 중산층 파산 이유로 트럼프 대중국 고율 관세 비판 • 바이든, 대中 관세폐지 시사 • 민주당, 동맹국 연대와 新글로벌 무역 협력으로 중국 독주 견제 • 바이든 TPP 통한 中 압박시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 中 고율 관세 인하 혹은 취소 • 동맹국 연대 통한 중국 고립전략 • TPP 재가입 후 인권문제, 환경보호, 지적재산권 이유로 중국 가입 견제 • 중국은 RCEP를 통한 충격 완충 필요 |
| 테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바이든, 중국 기술 제재 침묵 • 민주당,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사이버 안보 우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中 테크기업 현행 제재 유지 • 美 동부와 서부 연안지역 표심 위해 대 중국 기술 제재 강화 |
| 금융 환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주당, 환율조작 엄중 대응 예고 • '홍콩 자치법'으로 SWIFT 시스템에서 중국 배제에 대한 입장 발표 없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기적 강한 금융제재 제한적 • 환율조작국 지정, 홍콩 특별지위 박탈, 중국 ADR 제재 실효성 낮음 • SWIFT 배제 가능성 제한적 |
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2021년 중국 가공무역용 수입 탄력적인 회복 기대


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3. 5년의 구상 : 쌍순환 전략, 안에서 밖을 보다

14•5계획의 키워드는 ‘내수’, ‘기술’, ‘녹색경제’, ‘디지털’

- 14•5계획의 차이점은 新발전전략으로 ‘쌍순환 전략(내수중심)’ 채택, ‘기술혁신’ 목표의 최고 격상
- 아울러 양적 수치보다는 질적 목표에 훨씬 더 무게 : 그린에너지, 소프트파워, 디지털경제, 헬스케어
- 수혜 업종 : 태양광, 풍력, 전기차, 반도체, 5G, 면세, 증권, 로컬명품(내구재), 온라인플랫폼

14•5 목표 : 전략형 신흥산업, 직접금융, 도시화율(호적), 디지털산업, 비석화 에너지 비중

| 분류 | 세부사항 | 13/5목표 | 2019년 달성률(누적) | 2020년 예상 | 14/5 목표 (예상) | 목표 상향률(누적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민생 | 개인 의료비 지출/전체 의료비(%) | - | 28.3 | 28.1 | <26.5 | (1.6) |
| | 농촌 빈곤 탈피인구(만명) | 5,575 | 5,024 | 5,024 | 빈곤층 기준 이하 탈피 | |
| 경제 | 전략형 신흥산업 GDP 비중(%) | - | 11.5 | 12.0 | 17.0 | +5.0 |
| | 상주인구 도시화율(%) | 60.0 | 61.0 | 60.6 | 65.0 | +4.0 |
| | 호적인구 도시화율(%) | 45.0 | 45.0 | 44.4 | 50.0 | +5.0 |
| | 직접금융 비율(%) | - | 12.2 | 18.0 | 25.0 | +7.0 |
| | 시가총액 GDP 비중(%) | - | 70.0 | 59.8 | 80.0 | +10.0 |
| 과학 혁신 | R&D 지출 강도(%) | 2.5 | 2.1 | 2.2 | 2.6 | +0.4 |
| | 데이터 산업 부가가치(조위안) | - | 7.1 | 7.8 | 15.6 | +7.8 |
| 환경 | 에너지 소비 GDP 비중(%) | (15) | - | (27) | (10) | (2.0) |
| | 비석화 에너지 비중(%) | 15.0 | 15.3 | 16.0 | ~20.0 | ~+1.0 |
| | CO2 배출 GDP 비중(%) | (18) | - | - | 0 | - |
| | 폐기물 재활용률(%) | 54.6 | - | - | 61.4 | +6.8 |
| 리스크 관리 | 총부채비율(%) | - | 259 | 280 | 280 | 유지 |
| | 식량 자급률(%) | - | >95 | >95 | >95 | 유지 |
| | 에너지 자급률(%) | - | >80 | >80 | >85 | +5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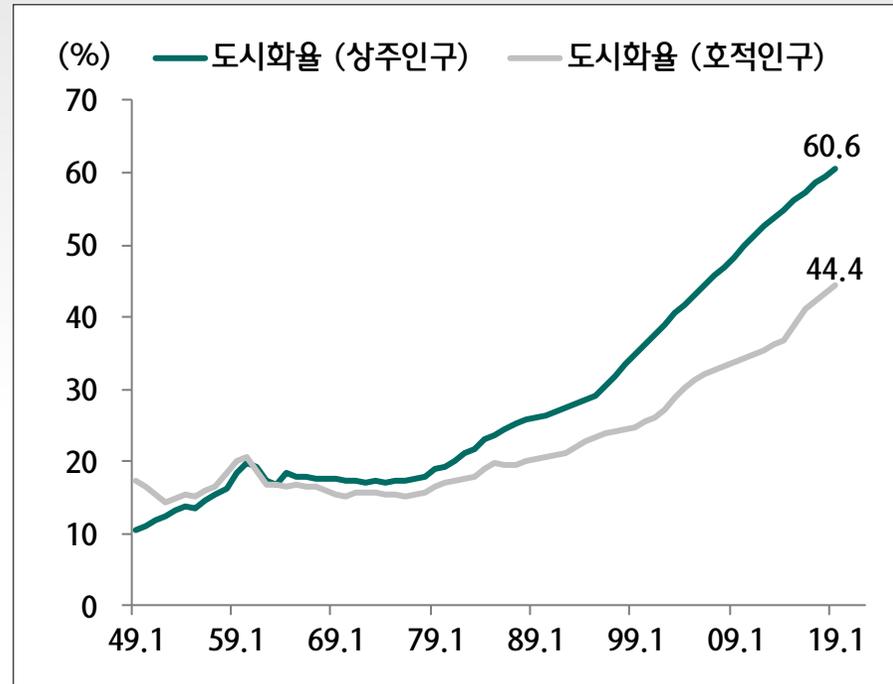
주 : 2020년 제조업 고정투자는 1-9월 누적 전년비 증가율
 자료: Wind, 하나금융투자

3. 5년의 구상 : 쌍순환 전략, 안에서 밖을 보다

쌍순환 전략 : 안에서 밖을 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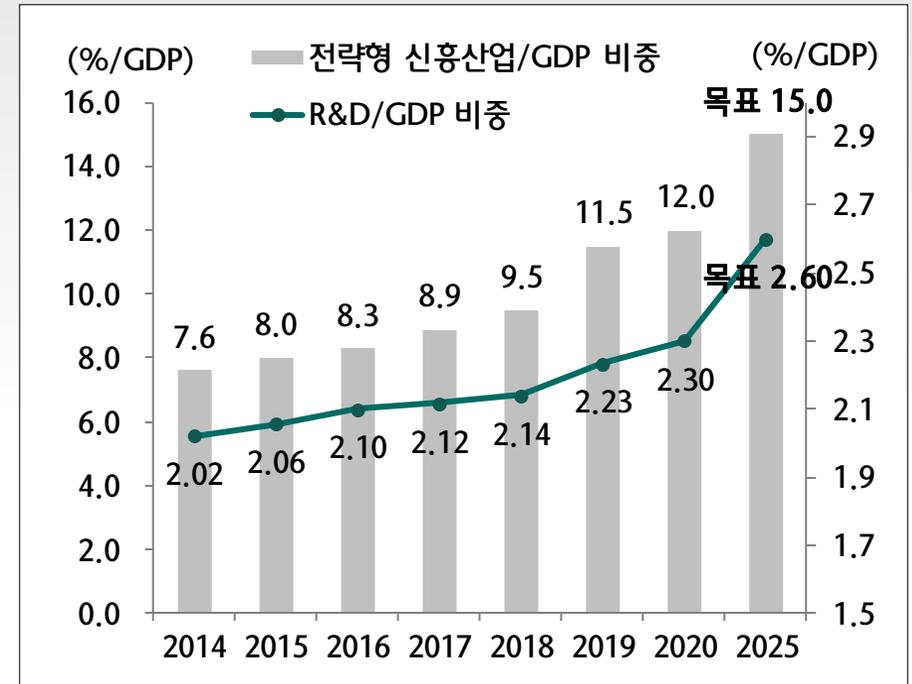
- ‘14억 시장’과 ‘글로벌 생산 28%’ 활용법 : 신형도시화/소비고도화/해외소비리턴, 공급은 기술국산화
- ①공급망 훼손으로 인한 ‘비용 상승’ 완충, ②대외의존도 높은 영역 국산화(반도체/에너지/식량)
- ③내수 최적화 : 전략산업 육성/친환경/디지털경제, ④대외개방(위안화) : 금융개방, 핵심제조업 유치

내수성장 : 구매력 확대, 고도화, 해외소비 리턴


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기술자립 : 양적 팽창 불구 핵심기술 확보와 수익성 부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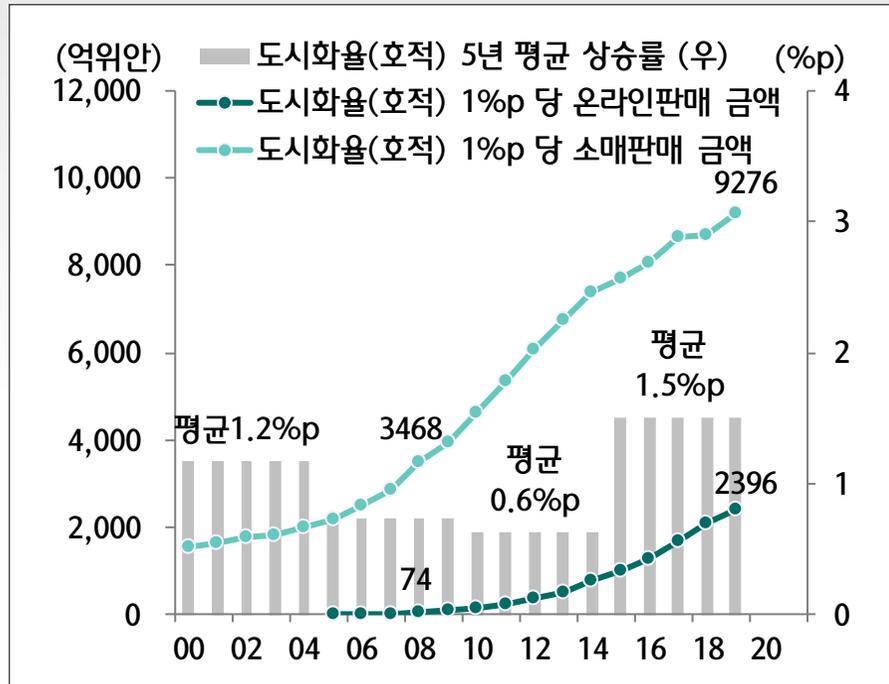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3. 5년의 구상 : 쌍순환 전략, 안에서 밖을 보다

‘신형 도시화-인프라투자-디지털경제’ 활성화

- 내수 확대는 구매력 제고(신형도시화), 고도화(신형인프라/디지털), 해외소비 리턴이 핵심
- 신형 도시화 : 상주인구가 아닌 사회보장 적용 호적인구 비율 제고, 구매력 갖춘 도시인 생성 목표
- 신형 인프라 : 5G, 전기차, AI 등 7대 영역에 5년간 10조위안(11%/GDP) 투자, 연평균 +15% 성장

도시화율 상승(호적)과 온/오프라인 소비 유발효과


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신형인프라 : 2025년까지 직접투자 10조위안

| 분야 | 세부 산업 | 직접투자 (~2025년) | 유발효과 (~2025년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G | 기지국/네트워크장비 응용플랫폼(자율주행) | 5G기지국 500만개 2.5조위안 | 5G 밸류체인 5조위안 |
| IDC | 송수신기, 데이터센터 자동차/위성데이터 | 서버 220만개 1.5조위안 | IoT, 클라우드컴퓨팅 등 3.5조위안 |
| AI | 센서, 식별기술 인공지능컴퓨터 | AI칩 1,000억위안 클라우드플랫폼 1,200억위안 | 인공지능 밸류체인 (S/W, H/W) 4,000억위안 |
| 산업인터넷 | 산업인터넷 네트워크/ 플랫폼로봇, 클라우드 | 산업인터넷 인프라 6,500억위안 | 산업인터넷 밸류체인 1.2조위안 |
| 특고압 | 변전소, 전기장비 제조 송전설비, 변압기 | 특고압선로 5,000억위안 | 특고압선로/장비 1.2조위안 |
| 전기차/ 충전소 | 충전소인프라 | 연45만개 증설 900억위안 | 전기차충전소/교체 2,700억위안 |
| 궤도열차 | 철도건설, 철도장비 | 1.5억위안/1km 4.5조위안 | 철도장비 밸류체인 5.7조위안 |
| 총 투자액 | - | 10조위안 | 17.3조위안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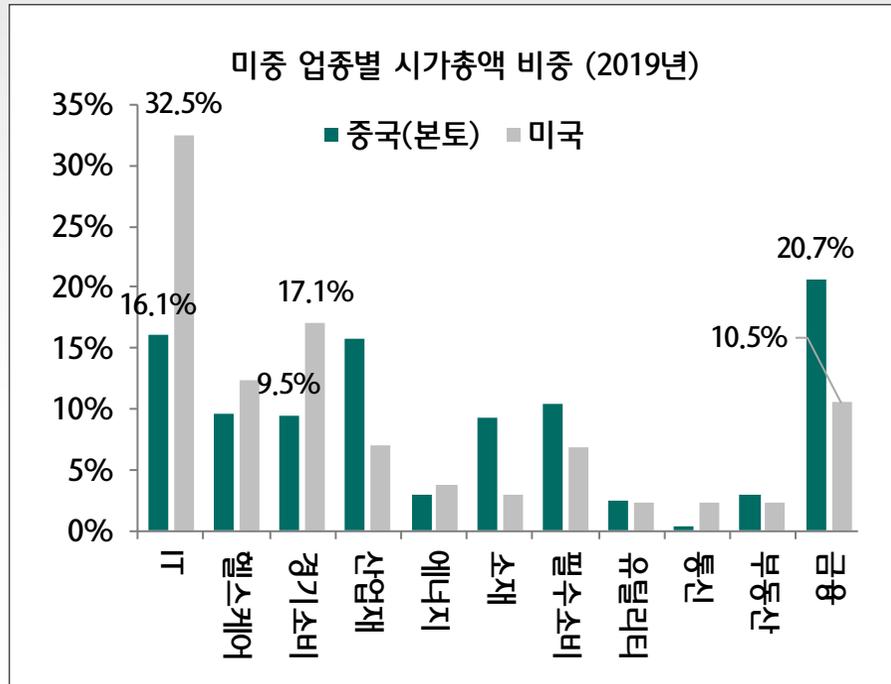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3. 5년의 구상 : 쌍순환 전략, 안에서 밖을 보다

금융·자본시장 개방, 그린에너지 전략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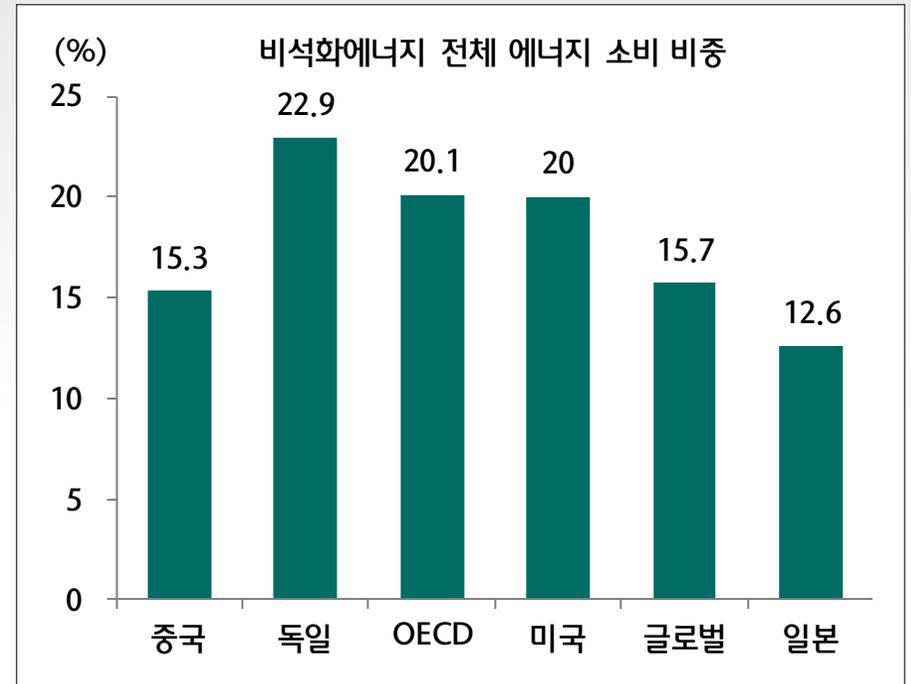
- 금융/자본시장 개방, ‘일거삼득’ 효과를 예상 : 혁신기업 패스트트랙, 내수 활성화, 과잉부채 완충
- 14·5 기간 비석화 에너지 비중 상향, 재활용, 폐기물 처리 강화, 신 에너지차 보급 확대
- 태양광/풍력/LNG 투자 확대, 제로 플라스틱 정책, 환경규제 기준 상향, 에너지 안보 강화

미중 시총 비교 : 중국 IT 업종 미국의 절반 수준


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2019년 비석화 에너지 비중 15%에서 대폭 상향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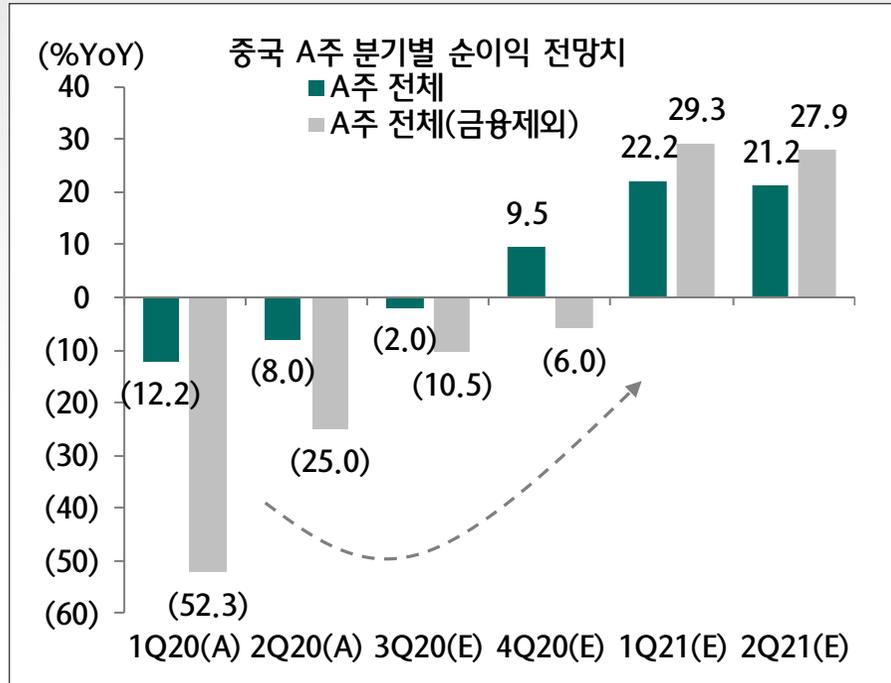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4. 2021년 중국증시 전망 : 강세장 후반전

강세장 후반전, '산자'(1등기업)와 '싼자'(가치주)의 반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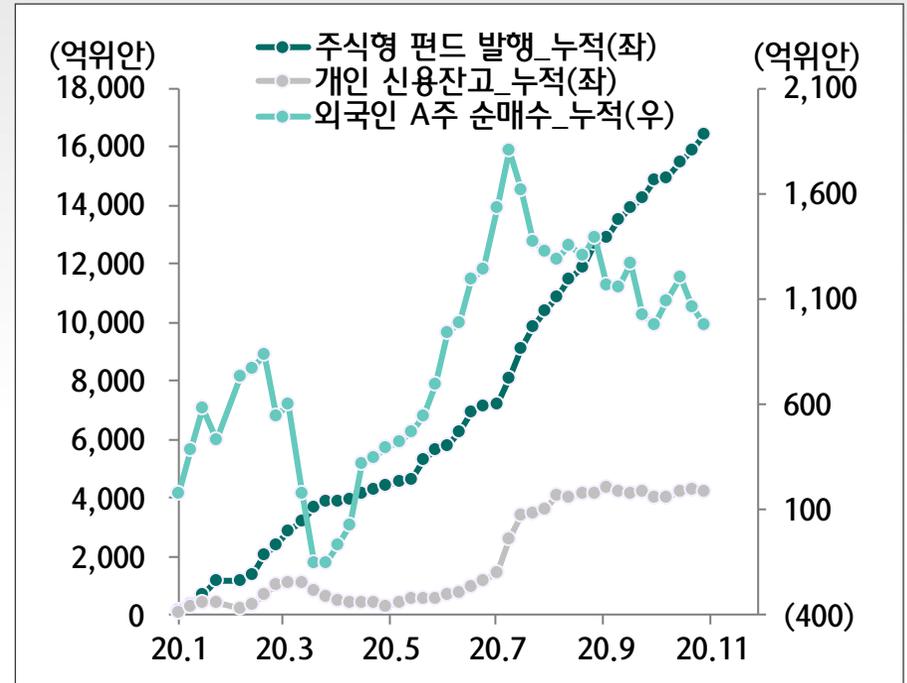
- 2021년 상해종합 예상 밴드 3,850p-2,950p : 경기/금리 상승 수혜 → 테크(수출), 경기소비, 금융
- 2020년 유동성 기반, 소비/성장주 견인 '전반전' ▶ 2021년 실적 및 산업 정책 기반의 강세장 '후반전'
- 이익 두 자릿수 증가, 외국인/기관(펀드)/개인(脫부동산) 구조적 유입 : CSI300, 항생테크지수 추천

A주 상장기업 이익 증가율 탄력적인 회복 예상


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시중 유동성 대비 밸류에이션 여전히 적절한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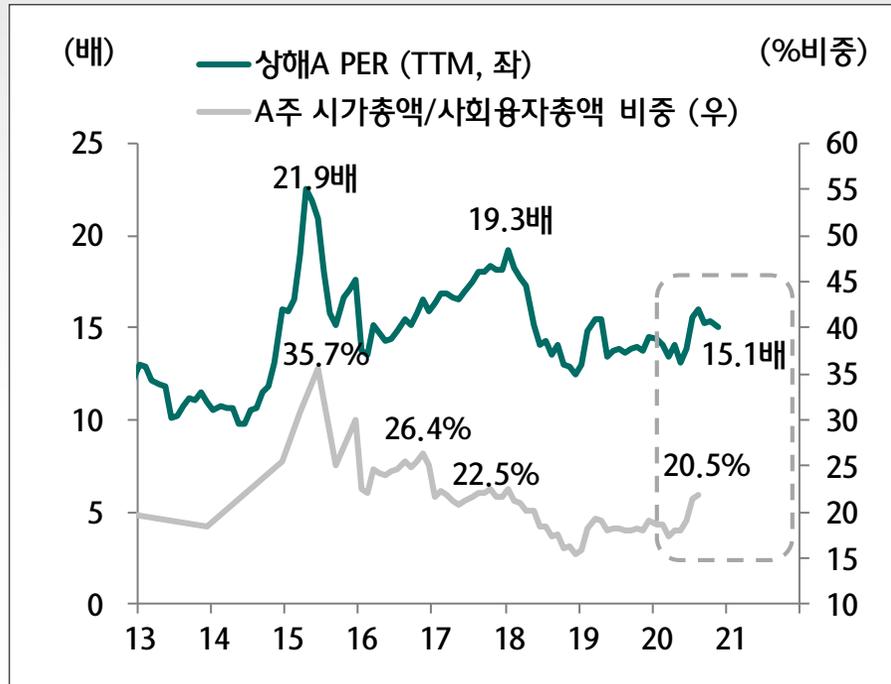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4. 2021년 중국증시 전망 : 강세장 후반전

강세장 후반전, 시장 밸류 매력-IPO속도와 개별 성장주 과열은 경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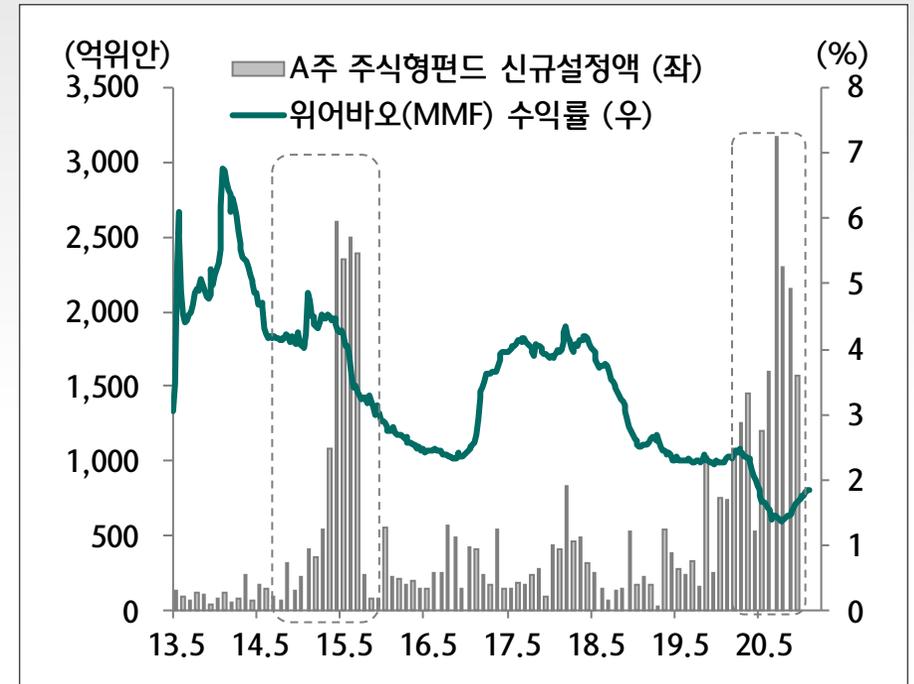
- 2021년 강세장의 두 가지 조건 부합 : 이익 턴어라운드(장기금리▲), 완화적인 정책기조(금융/통화)
- 거시 유동성 대비 시장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 충분, 일부 소비/성장주 가격 소화는 필요 (종목 압축)
- 상반기 주식공급 강도(과창판/IPO등록제), 정책기조와 금리(상반기), 개인 수급 약화는 위협 요인

거시 유동성 대비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 여전히 상존


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가계 금리와 펀드 발행 역의 관계 : 개인 유입 강도 중요



자료: CEIC, Wind, 하나금융투자

4. 2021년 중국증시 전망 : 강세장 후반전

2021년 차이나 포트폴리오 (상반기)

| 종목명 | 종목코드 | 업종 | 세부 | 시가총액 (억) | 회사소개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용기실리콘 | 601012.SH | 태양광 | 단결정 웨이퍼 | 2676.5 | • 대표 태양광 업체이자 글로벌 최대 태양광 단결정 웨이퍼 생산 업체 |
| 금풍과기 | 002202.SZ | 전기장비 | 풍력 발전기 | 477.1 | • 풍력발전 장비 1위 기업으로 관련 특허기술 2,800건 등록 |
| 만화화학 | 600309.SH | 화학 | 폴리우레탄 | 2513.4 | • 핵심기술 우위를 보유한 대표적 MDI,TDI 제조업체 |
| 북방화창 | 002371.SZ | 반도체 | 삭각장비 | 886.1 | • 반도체 장비 1위 회사로 CVD,PVD,MFC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갖고 있음 |
| ZTE | 000063.SZ | 통신장비 | 5G 네트워크 | 1311.5 | • 통신장비 제조업체로 5G 기지국 설립과 핵심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|
| 하이크비전 | 002415.SZ | 정보기술 | CCTV | 4263.2 | • 대표 CCTV 및 영상 보안장비 제공 업체, 8년 연속 영상 보안 시장 1위 |
| 온첵고분 | 002812.SZ | 전기차 | 배터리 분리막 | 898.3 | • 2차전지 분리막 선두 기업으로 글로벌 분리막 시장 점유율 14% 차지 |
| 장성자동차 | 601633.SH | 자동차 | SUV | 1940.7 | • 1위 SUV 생산 업체로 픽업트럭과 SUV가 주요 제품 |
| 거리전기 | 000651.SZ | 가전 | 종합가전 | 3611.2 | • 대표 가전제품 업체로 중국 내 에어컨 시장 점유율 1위 |
| 메이디 | 000333.SZ | 가전 | 종합가전 | 5796.5 | • 대표 종합가전업체로 에어컨, 밥솥, 전기면도기 등 가전 스마트화를 선도 |
| 텐센트 | 0700.HK | 인터넷 | 플랫폼 | 57316.2 | • 대표 IT기업으로 온라인 메신저QQ, Wechat, 게임, 클라우드 제공 |
| 중신증권 | 600030.SH | 증권 | 증권 | 3396.6 | • 가장 큰 규모의 증권사로 증권 중개업, 투자 상담, 거래 및 투자 활동 제공 |
| 홍업은행 | 601166.SH | 은행 | 은행 | 3720.7 | • 대형 상업은행으로 포춘 선정 500개 기업중 271위 선정 |

주: 2020년 11월 3일 기준
자료: Wind, 하나금융투자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,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.
-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2020년 11월 1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%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2020년 11월 16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